

교회 목록

신령한 예배
천국일로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주간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교회로 창간호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김성관 편집인:노광현 편집:양재웅

오늘, 제4차 성찬식 및 어린이·아버지 주일

(2·3부 가족연합예배)



성령의 열매로 가득할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갈 5:22,23)는 오직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에서 시작합니다.(갈 5:24) 따라서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제4차 성찬식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특히 어린이·아버지 주일을 맞아 드리는 가족연합예배(2·3부)를 통하여 온 가족은 십자가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행복한 가정은 건강, 재산 등 세상의 가치에 있지 않습니다.(고전 3:11)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가정만이 영원토록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국일꾼이 되어 이웃과 온 땅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가정은 분명 성령의 열매로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운데 이 은총을 풍성히 느끼고 삶의 현장에서 돌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는 복음의 중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빌 1:27)

*영아·유아·유지·고등부는 지체예배

22개 교회학교를 품에 안은 24개 교구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는 말씀에 기초하여 교회가 힘차게 역동하고 있습니다. 24개 교구는 주님의 교회의 날개가 되어서 매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넓게, 때로는 세밀하게, 성도들을 돌아보며 십자가로 하나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교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구와 교회학교를 전담교역자가 각각 관리하였으나, 그래서 사역이 중복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4개의 교구가 22개의 교회학교를 품었습니 다. 각 교구가 교구 내 교회학교 학생을 포함한 말저지 모든 가족들을 돌보기 때문입니다. 주일에는 모든 교역자들이 22개 교회학교에서 성도들을 돌봅니다. 목사님들은 물론이고 전도사님들도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사랑방과 소망방을 비롯한 교회학교에 전한 배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일에는 주일에 결한 교회학교의 학생들을 포함하여 돌봄이 필요한 교구가족을 세밀하게 섬깁니다. 이처럼 24개 교구는 작은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복음을 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교회학교를 품에 안은 교구가 더욱 견고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살후 1:11)

*새롭게 개면된 2007년 교회 일꾼명단은 본지 7면 참조

자기를 부린하고 말씀을 돌으라!(금요찬양집회)

불행을 초래하는 불장난

외친다.(벧전 5:8,9) 그러나 삼손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지 못했다. 사자는 죽었으나 그의 부모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삿 14:8,9) 원어에는 삼손이 그 사자의 시체를 뒤집어서 별 때와 같이 있음을 발견하였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죽은 사자의 몸을 들춰지러 불행을 초래하는 불장난을 하는 삼손의 모습이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져 있음을 선포했다.(민 6:6) 시체는 어떠한 것이든지 만지지 말고, 포도에서 나온 것은 어느 것도 취하지 말고, 또 절대로 머리에 사도를 대어서 안 된다. 그러나 삼손은 시체를 가지고 즐기며 자신이 서한한 것을 이기고 있다. 삼손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었다.

삼손이 배운 잔치를 생각해 보자.(삿 14:10,12)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결혼잔치는 일주일씩 계속 되었으며 풍상적으로 포도주를 마셨다. 과연 이 결혼잔치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삼손이 혼자서 묵만 마셨을까? 다시 한 번 삼손이 나실인의 서원을 밝히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다. 결혼식에서 매우 당연하게 생각되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포도주는 그의 서원의 한 부분이다. 결국 삼손은 7일 잔치 후에 그의 아내를 자신의 친구에게 잃게 된다.(삿 14:20) 삼손의 삶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세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실 때마다 그가 초자연적인 힘으로 행하였음을 증거해준다. 둘째는 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것은 그의 욕망이었다. 셋째는 삼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반역된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두신 목적과 섬리는 계속적으로 그에게 나타나고 있다. 즉 삼손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내려는 것이었다.

성경은 결혼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남자가 여자와 결혼할 때에 그 여자의 가정과도 합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남자와 연합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삼손은 힘이 강한 남이었지만 자신의 정욕, 욕망에 의하여 매우 위험한 사람이었다.(갈 5:3-5) 결국 이것이 합성이 되어 삼손은 빠져나올 수 없었다. 성경은 그 집 문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한다.(창 5:8) 우리는 수많은 문들이 있는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다. 특별히 거룩한

의 의식을 입은 자들, 홀로 문을 열고 들어가 음란에 빠져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마 음속에 스며드는 음란의 마귀 앞에 많은 성직자들이 쓰러지고 있다. 다른 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음란이 자기 자신을 노예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창 5:9) 나약한 자기 자신을 원망하기보다 나약한 자신을 솔직하게 부인하고 자신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 들일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줄 믿는다. 재물 역시 마찬가지다. 삼손이야말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교인들은 감옥속에 갇혀서 철장을 통하여 밖을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세상으로 통하는 문은 활짝 열려 있다.

아직 미혼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의 성결을 유지해야 한다. 성(sex)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셨기에 성(sex)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율타리 안에 있을 때에 성(sex)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성취감도 주고 우리를 신성하게도 해 준다. 남자는 밑에서 솟아오르는 물이 있는 샘과 같다.(잠 5:15,16) 남자는 육체적으로 짧은 시간에 섹스를 할 준비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자는 다르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샘으로부터 솟아 나오는 깨끗한 물이 있는 닫혀 있는 구조이다. 결혼생활에서의 섹스는 참으로 닫혀진 구조이지 오며 가며 지나는 자마다 다 마실 수 있도록 열려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피로된 대로 성결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은 항상 신성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신다.(잠 5:17-19)

남자들이여, 잘 들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로서 가정에서 아내를 향하여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아내를 향한 신실함이 있어야 한다. 참으로 순결하게 이 관계를 지켜가야 할 책임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시며 마음까지도 감찰하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하게 원하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순수하고 순결해 질 수 있게 해주신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성의 모든 찬란함이 육체로 거하시기를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도 그 안에서 찬미하여 겹들을 말씀하여 주신다.(골 2:9,10) 물론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베드로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자에게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주어졌음을 말한다.(벧후 1:1-3) 처음에 이 자식을 알게 될 때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며 또 주와 함께 돌을 동행할 때에 그 지식은 점점 더 풍성하게 된다. 예수께서 빛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서 걸어가면 그리스도의 보혜사께서 성경을 절결하게 하실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요일 1:7) 하나님께서는 씩여져 가는 세상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벧후 1:4) 아멘.

THE LORD IS MY BANNER

⁽⁸⁾Then Amalek came and fought against Israel at Rephidim.

⁽⁹⁾So Moses said to Joshua, "Choose men for us and go out, fight against Amalek. Tomorrow I will station myself on the top of the hill with the staff of God in my hand." ... ⁽¹⁵⁾ Moses built an altar and named it The LORD is My Banner; ⁽¹⁶⁾and he said, "The LORD has sworn; the LORD will have war against Amalek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Exodus 17:8~16)

The Israelites crossed the Red Sea with God as their banner. Their Egyptian enemy was completely destroyed by the very waters that saved them. As such, they rejoiced and sang, "The Lord is my strength and song, And He has become my salvation; This is my God, and I will praise Him; My father's God, and I will extol Him. The Lord is a warrior; The Lord is His name." (Ex. 15:2&3) God not only saved them from certain death, but even provided them with manna from heaven. Their energy was refreshed over their great victory. Unfortunately, whenever our spiritual lives are renewed trouble comes again. This is the Christian life as stated by Jesus, "In the world you have tribulation, but take courage; I have overcome the world." (Jn. 16:33) The tribe of Amalek began attacking Israel from the rear, assaulting the stragglers. They knew that the Israelites' strength was in God, not in material weapons or military experience. As such, they were determined to defeat and kill every last one of them. Moses told Joshua, "Choose men for us and go out, fight against Amalek. Tomorrow I will station myself on the top of the hill with the staff of God in my hand." (v. 9) From a worldly perspective this does not make sense. Joshua's leader was telling him to use untrained men as soldiers to fight trained soldiers, and that he himself was going to be a distance away, safely observing the battle from a hilltop with only a stick. Indeed, without faith one cannot move because the ways of God are too mysterious for human understanding.

My dear friend, we are in a battle. Too many Christians and churches have the wrong idea concerning the work of Christians and churches. Our church is not here just to preach and teach and join together in happiness. Today's sermon may be great and the music may be heavenly but we are not here just to have a good time. We are not here to raise money for the poor or run fascinating spiritual programs. We are here to do battle with the enemy! Eternal issues are at stake. Our spiritual souls hang in the balance. Our standards of righteousness are being compromised and we need to fight the good fight. We need a firm spiritual foundation, "Finally,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the strength of His might.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so that you will be able to stand firm against the schemes of the devil." (Eph. 6:10&11) Every Christian and every church needs Jesus Christ. He is our weapon against the enemy; He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Rom. 1:16) The Bible clearly tells us

that "greater is He who is in you than he who is in the world." (1 Jn. 4:4) Jesus gives to us the power of His Holy Spirit, "but thanks be to God, who gives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Therefore, my beloved brethren, be steadfast, immovable, always abounding in the work of the Lord, knowing that your toil is not in vain in the Lord." (1 Cor. 15:57&58)

My dear friend, we may become weary in battle. Moses' hands became tired. (v. 12) His hands were Israel's secret weapon against their war with Amalek. He held up his hands for Israel as best he could. Whenever his hands were up Israel prevailed, but whenever his hands came down Israel failed. God's servant became tired, and the enemy took advantage of it. Your senior pastor sometimes gets tired from preaching, ministry work, long hours of study, family conflicts, spiritual encounters, and so on. Each of us fights fatigue in this life. It is part of the battle. What can we do to win in our weak times? How can we have victory when we are tired?

My dear friend, we can help hold the hands of those who are weary together. Aaron and Hur found a stone for Moses to sit and rest on, and they "supported his hands, one on one side and one on the other. Thus his hands were steady until the sun set." (v. 12) We can help each other in times of need by praying, refusing to criticize, and encouraging one another. We can help by joining together to win people to Christ and faithfully worshipping with one another.

Jesus Christ is the living Son of God. We must confess this truth, for Jesus said from that confession He will build His church. After Joshua won the battle against Amalek, God told Moses, "Write this in a book as a memorial and recite it to Joshua, that I will utterly blot out the memory of Amalek from under heaven." (v. 14) God also said that He is going to wipe out death and Hades forever, "Then death and Hades were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Rev. 20:14) If we truthfully declare that Jesus Christ is our Lord, the living Son of God, then we will win. Our victory is assured through our faith in Jesus Christ. Jesus said, "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e world you have tribulation, but take courage; I have overcome the world." (Jn. 16:33) I hope you have His peace, so that you can have victory over life's battles. Moses built an altar and named it, "The Lord is My Banner." (v. 15) Is the Lord really your banner? If so, then you will have victory! 🙌

다음 주일 설교

여호와 낫시

(8)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9)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
 (15)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낫시라 하고 (16)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17:8~16)



김성판 목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총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반면에 애굽의 군사들은 이스라엘을 구했던 바로 그 홍해에 빠져 완전히 진멸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며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와는 용사시니 여호와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출 15:2,3) 하나님은 죽음의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만사를 내려 먹이셨습니다. 위대한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는 더할 나위 없이 충천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영적인 삶이 새로워질 때면 어김없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아말렉 족속은 뒤쳐진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의 후방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힘이 무기나 군사적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도 멸절시키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9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정말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훈련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뽑아 적군의 정예병들과 맞서 싸우게 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저 멀리 떨어진 산꼭대기에서 단지 지팡이 하나만을 들고 이 전쟁을 관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결코 융성할 수 없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함 하나님의 방법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자신들의 사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지 설교하고 가르치고 행복하게 함께 어울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설교가 위대하고 찬양의 음악이 아름답게 울려 퍼질지라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기금을 마련하고 기발한 공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적과 싸우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의의 기준은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잘 치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확고한 영적 기초가 필요합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엡 6:10,11)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롬 1:16) 성경은 “우리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요일 4:4)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

여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전 15:57,58)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지칠 때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을 치르다보면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팔도 피곤해졌습니다.(12절)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그의 손은 이스라엘의 비밀 병기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힘을 다해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올라가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군이 이겼지만 그의 손이 내려갈 때면 이스라엘군이 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적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역자들도 설교나 사역, 장시간의 연구, 가족간의 불화, 영적 전쟁 등으로 인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도 고단한 삶으로 인해 피로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쟁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연약해질 때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지쳐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서로 도울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쳐있는 지체들의 손을 잡아줌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가 앉아서 설한들 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친 모세를 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12절) 누군가가 필요한 순간에 비편이 아닌 격려의 말 한 마디와 기도는 서로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연합하고 함께 신실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늘 고백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14절)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랑과 음부를 없애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음부도 불 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랑 곧 불 못이라”(제 20:14)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실하게 선언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때에야 비로소 여러분은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낫시”라 이름하였습니다.(15절) 참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승리의 길만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

수요1부 예배 메시지 (2007. 5. 2.)

내어 쫓긴 자가 돌아오다 (사무엘하 14:14)

우리의 가정은 말씀에 기초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부모들은 도와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떠한가?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학업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약간의 일단 생지도 주님보다는 세상을 향해 손잡음이 달려가려는 우리의 가정은 아닌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한 우리의 가정이 되길 원한다. 우리의 가정이 보혈로 가득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윗의 가정을 살펴보자.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고 많은 자녀들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모하였다. 그래서 암논은 속임수를 써서 다말을 억지로 강간하였다.(삼하 13:14) 이 소식을 들은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다.(삼하 13:23,28)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3년 동안 피해 있어야 했다. 압살롬은 아버지로부터 내어 쫓긴 자가 되었다.

하나님에게 추방당한 자 압살롬이 아버지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 추방을 당한 사람이었다. 이 모든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롬 6:23) 에덴동산에서의 아담의 타락은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안겨주었다.(히 9:27)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롬 5:12) 이처럼 비참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에도 우리의 무지 몽매함은 회개의 메시지를 외면할 뿐이다. 단지 세상의 가치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있다. 돈, 명예, 권력, 윤리(義)의 문제를 앞세워 오히려 예수님을 또 다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생각으로 가득하다. 이 악한 모습이 하나님에게 추방당한 우리의 실체이다. 죄로 가득한 이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추방당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있다. 구원의 유일한 통로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요 3:17) 우리는 분명히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추방당한 죄인이다.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 주셨다 암논을 죽인 죄로 인해 추방을 당했던 압살롬에게 살 길이 열렸다. 그런데 사실 압살롬이 지은 죄의 모든 원인 제공자는 다윗이었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였을 때 다윗은 공정한 조치를 해야 했다. 그런데 다윗은 사건의 발생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에 압살롬은 살인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다윗의 군대장이었던 요압은 한 여인을 통해서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 일어난 일을 비유로 말하며 다윗의 마음을 돌리게 한다. "우리는 필경 죽으니라 땅에 쫓아진 물들다 시 모으지 못할 갈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어쨌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리이다"(삼하 14:14) 압살롬에게 살 길이 열린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셨다. 하나님은 결코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신다.(행 10:34) 따라서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는 열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에만 살 길이 열린다.(롬 10:13) 예수님이 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눅 19:10) 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다.(벧전 3:18)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 주셨다.

추방당한 자가 돌아와 완전한 교제를 원하신다 사실 다윗은 압살롬을 추방했던 지난 3년여 시간 동안 압살롬을 만나기를 원했다.(삼하 13:39) 그러던 차에 요압이 보낸 한 여인을 통해서 다윗은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하였다.(삼하 14:21,23)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다.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에 내지 서 있지 않은가? 단지 부모의 권위를 앞세워 가정 위에 군림하고 있지 않은가? 심지어 성경을 인용하기까지 하며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지 않은가? "충성의 부모님들이여! 우리가 먼저 진심으로 회개합시다!" 오직 우리의 가정이 복을 위에 굳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 내가 먼저 복음을 깨달아야 한다. 부모님 내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은 복을 안에서 견고해질 것이다.(찬 449장)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는 오직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후 6:1,2)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나누자.

집으로 돌아와 가리라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이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 가던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자녀도 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다.(요 1:12)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의 가정은 참 생명의 은총으로 가득할 것이다.(요 5:24) 죄로 인하여 내어 쫓김을 당하였던 압살롬이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으로 돌아와 거하라고 하신다. 이 은총의 부르심이 진실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자.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죄 있는 자들이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찬 318장) 아멘.

순 중

선교를 준비하며 그리스도인의 자기부인과 준비된 지만 선교를 가리는 선교방침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나, 자기부인이 되지 못한 나를 발견하고 주님께 먼저 나 자신을 고쳐주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어서 나를 주장하시기를 기도했다. 그러나 순간순간 살아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몸부림쳤다. 죄인임을 남보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절망 속에 애통할 때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다시 힘을 주셨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관습가 185장으로 쉼터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 안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선교지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교지로 향할 수 있었다.

선교지에서 우리는 어눌한 언어로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귀를 열어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였고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셨다. 그곳은 전도활동을 하면 불법이라 두려운 마름도 있었지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생각지도 않은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다. 전도언어 복음의 내용을 노트에 적어놓고 매일 읽으며 기도하셨다고 하면 어인, 듣기 싫다면 사람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깊은 고민에 빠지는 모습도 보였다. 선교지에서 주일 예배를 통해 다시 한 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고 복음 증거자의 도구로 사용하심에 감사하며 회개하였다. 그 땅의 뿌리진 십자가 복음이 자라나서 그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구로 삼으실 같이 그 영혼들이 십자가 복음의 증인들로 새을 받아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를 기도한다.

이경옥(집사, 21교구 2팀)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4월 23일(월) ~ 5월 2일(수)	7·8·24교구 연합	장길남
4월 27일(금) ~ 5월 5일(월)	24교구	이달옥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4월 30일(월) ~ 5월 8일(화)	5교구	김옥권
5월 1일(화) ~ 5월 9일(수)	24교구	정재영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5월 7일(월) ~ 5월 15일(화)	16·24교구 연합	김철환
5월 11일(금) ~ 5월 19일(토)	9·10·16교구 8교구 연합	전성욱

영아부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한 천국일꾼들



● 아이와 함께 영아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아이에게 그림성경을 읽어주면 매우 좋아합니다. (김영수 성도, 김윤하의 엄마)

● 아기 때부터 영아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며 자라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아이들을 돌보며 오이려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예향 선생님)

●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영아부가 있어서 진과 감사합니다. (이소희 집사, 이윤민 엄마)

● 아이가 1개월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출근 나와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가장 먼저 부른 찬양이 (할렐루야)였습니 다. (안정희 집사, 박준하의 엄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 18:3)

매주일 오전, 7층 건물의 계교육방은 매우 분주하다. 교회학교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영아부부터 소년부의 천국일꾼들이 복음을 배우고 깨닫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한 천국일꾼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기에!

충렬의 내일은 든든하다.



선생님의 지위에 맞추어 입을 벌려 찬양하는 유치부찬양대 모습은 분명 천사들이었다.

유아부

● 예배시작 40분 전 유아부 예배실에 갔을 때 손혁은·문예진 어린이가 찬양대 옷을 입으려고 깡뎡대고 있었다. "예수님이 좋아서 찬양대가 되었다"고 더듬 더듬 말하는 두 명의 천국일꾼을 통해서 함박웃음을 지으실 예수님이 어찌 웃을까.



유년부

● 반을 맡아 아이들을 가르치지는 않지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아이들을 제일 먼저 만나는 기쁨이 큼니다. (배석은 선생님, 안내담담)



● 예배 시작 훨씬 전부터 나온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유민희 선생님, 안내담담)



●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안준택)

●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랑의 마음으로 친구들을 전도했어요. (김예연)

● 예수님은 매일 저를 지켜 주세요. (송채영)

●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 게임도 하지 않게 됐어요. (박선우)

● 예수님께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이연주)

● 예수님은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구예은)

● 예수님은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어요. (강진희)

● 항상 밝은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임이 저절로 생깁니다.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유영선 선생님)



엄마와 떨어져 예배를 드린 우 반별모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는 유아부 아이들이 대견스러울 뿐이다.

유치부

● 주일마다 아이들을 만나는 은혜가 제게 너무 큼니다. 한 생명이 소중하기에 매일 기도하며 더 많은 아이들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유우주 선생님, 새천구동록담당)



● 일주일 내내 아이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합니다. 영상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작은 준비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에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선생님, 영상담당)



●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세요. 정말로 좋아요. (김은식)

● 찬송가 중에 "예수께로 가면"을 부르면 기분이 좋아져요. (심인애)

●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윤예찬)

●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박예림)

● 할아버지와 매일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민예민)

● 예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이 많이 좋아요. (강유나)

● 집이 멀어도 교회에 오면 좋아요. (이진영)

초등부

● 이미 시작된 예배, 열려버린 예배실에 들어가서 백동길 어린이를 만났다. "왜 놀았어요?" "지금 도로에 차가 너무 많이 있어서 어쩔수 없었어요." "응, 그렇군요. 교회에 오는 것이 좋아요?" "당연하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마음이 가뿐해지니까요!"



소년부



● 예수님은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세요. (홍민영)

● 예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신안 목사이신 예수님이 좋아요. (김나연)

●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에게 좋은 마음을 주세요. (조아영)

●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의 두우심이 느껴져요. (이은미)

● 예수님은 저의 가장 좋은 친구이세요. (임예민)

● 예수님은 항상 저를 보호해 주시지요. 천국까지 저를 인도하실거예요. (김성현)

● 저에게 믿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놀라워요! (이재혁)

우리 가족의 호주는 예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고 떨린다. 인간의 머리로는 관대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헤아릴 수 없지만 아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하게 체험하였다. 하나님은 우리 아바를 2006년 9월 10일 주일 오후에 심장소사로 데려가셨다. 정말로 견디기 힘든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던가! 역시 그랬다. 하나님은 이 충격적인 사건에 앞서 우리 가족을 준비시키셨다.

먼저 하나님은 아바를 준비시키셨다. 매사에 성실하셨던 아바는 참으로 모범적이었지만 하나님과의 진실된 만남은 없었던 것 같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환경이었지만 아바에게 단기선교에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선교를 통해서 아바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처럼 아바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게 되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남겨질 우리 가정을 준비시키셨다. 이진부터 아바의 심장이 안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아바는 가족들 몰래 검사를 받으셨고, 우연치 않게 나는 "아바의 상태가 매우 안 좋다."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아바는 자신의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힘들다는 내색 한 번 안 하셨던 것이다. 이런 아바의 성품을 알기에 우리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달 정도의 시기에 우리 가족은 주안에서 더욱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날! 하나님께서 아바를 데려가셨다. 사실 예상치 못했다. 기간이 더 남았으리라 생각했다. 인간적으로 아바와 더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은 욕심에 화가 나기까지 했다. '왜! 벌써?'라며 원망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아바를 데려가셨음을 우리 가족은 알고 있다. 너무 착해서 손해만 보시던 아바는 시간이 갈수록 이 땅에선 계속 너무 힘들게 테니까...

풍성한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낄 수 있었던 아바의 장례식 이후에 놀라운 것이 있다면 우리 가족의 평안함이었다. 물론 한동안은 천국에서 행복하시 아바 때문에 기뻐했지만 당장 눈앞에 볼 수 없다는 슬픔에 힘들었다. 그러나 남겨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 의가와 천가 가족들과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족에게 충분히 공급되었다. 물론 아바의 죽을 이후에도 계속되는 시련이 있었지만 새롭게 세워진 우리 가정의 가장인 엄마는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것 같아서 기쁘다"고 하시며 "더욱 깊이 십자가와 복음을 위한 고난을 묵상하자"라고 하셨다.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가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위로가 힘이 되었다. 요즘도 가끔 아바가 보고 싶어서 눈물도 흘리지만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하나님 곁에 계시는 아바가 우리 곁에 있는 것만 같이 느껴진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아바는 천국에 가셨고 곧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다. 우리 가족의 예수님. 그 분이 오늘도 우리 가족의 호주(戶主)이심을 감사드립니다.

고혜진(성도, 6교구)

고난은 사랑스런 도구

삶의 여러 가지 기도제목들을 가지고 기도원으로 3일 금식을 작정하고 출발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간 기도제목은 마음먹대로 이루어져 나오지 않고 다른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고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궁핍히 여겨왔다고 기도했던 저였습니다. 그런 제게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했는데 왜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주지 않아 있느냐"며 제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주시고 거기에 더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음성을 듣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올해부터 새가족 양육부 고사로 삼기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았습니다.

다들 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귀신들린 딸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던 '수모르니에 여인'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게'라고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매달려서 예수님께 "네 믿음대로 되라"고 칭찬 받았던 그 여인처럼 포기하지도, 절망하지도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제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주는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은 저의 믿음을 세워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때 3일 금식조차도 한 결심으로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음을, 최인인 저를 사랑하사 축복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간 기도서는 이미 보따리에 묶어 응답이라는 장소에 놓아두시고 말입니다. 또한 기도 후에 들어가는 오후 예배때마다 그 전 기도에서 주신 응답과 동일한 주제를 준비해서 친절하게 복습까지 시켜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전에 누군가가 "고난은 눈물을 바라보게 하는 사랑스러운 도구"라고 했던 것처럼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나를 고백시키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라는 말씀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고백할 수 있기만을 기도합니다.

고진순(권사, 18교구)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741	문혜성	18	대북부	김보희(16)	751	김영조	20	청년1부	김지은(16)	761	이보호	21	고북부	마하나(14)	771	양은숙	16	청년1부	양영숙(18)
742	이은정	3	청년1부		752	전연순	23	청년2부	홍희숙(14)	762	송영식	17	청년2부	강한숙(17)	772	박지훈	1	대북부	윤지현(1)
743	오재하	19	청년1부		753	홍소식	17	청년2부	윤정민(10)	763	남규	특활	청년부	강진숙(17)	773	이승민	9	청년1부	이혜원(9)
744	김재욱	17	청년1부	변정민(2)	754	정진철	15	청년2부	서석순(21)	764	최기	특별	외선부	정혜현(8)	774	손미나	23	청년1부	권보현(22)
745	김영규	6	청년3부	김영희(23)	755	김진하	4	청년2부	유하나(14)	765	바리르	특별	외선부	김진규(20)	775	홍혜정	12	대북부	홍혜기(17)
746	박재욱	16	청년1부		756	이우진	21	청년2부	최영민(10)	766	남규	특별	외선부	강진숙(17)	776	이영준	2	청년1부	이혜원(9)
747	서재원	16	청년1부		757	유승철	2	청년1부	채은민(24)	767	토르	특별	외선부	양은숙(12)	777	김민정	1	청년1부	
748	배재민	13	대북부	황미지(4)	758	오희정	9	청년1부	주영규(21)	768	타미르	특별	외선부	이영진(1)	778	유영기	9	청년1부	
749	김미성	13	대북부	박소연(23)	759	공진자	21	청년1부	공옥석(18)	769	토르	특별	외선부	이영진(1)	779	서지은	13	청년1부	
750	류현성	14	대북부	홍수민	760	양은정	14	청년2부	권은숙(14)	770	바리르	특별	외선부	이영진(1)	780	서지은	13	대북부	

* 중원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수화 칼럼 ④

“손으로 전하는 십자가 복음”



1. 하나님



주먹 권 왼손을 오른손바닥으로 감싸듯 밖에서 안으로 돌린 후, 이어서 왼손을 펼쳐서 왼손바닥 5지를 세운 오른손 주먹을 놓고 들어올린다.

2. 성령



오른손을 부드럽게 펼쳐 얼굴 안쪽에서 코끝으로 이동시킨 다음, 오른손의 1지를 관자놀이에 살짝 붙였다가 다섯 손가락을 약간 구부러 위로 올리면서 두 번 돌린다.

3. 삼위일체



왼손의 1,2,3지를 가슴 앞에서 세운 후 왼손의 1,2,3지를 오른손으로 잡고 오른손의 1지만 펴서 세워 올린다.

4. 성경



하나님 수화를 한 후, 두 손바닥을 책처럼 펼친다.

5. 찬송(찬양)



찬송가를 보듯 왼손을 눈앞에 세우고, 오른손의 1,2지를 약간 구부러 입 앞에서 앞쪽으로 원을 그린다. (참고: '노래' 수화는 왼손을 들지 않고 오른손만 사용합니다.)

교회 소식

모임

- 1. 정기모임 일: 9월(수), 2부 예배 후 정소: 양희철
- 2. 김시환(12월) 월례회 일: 9월(수), 1부 예배 후 정소: 배나루

발세

- 1. 이훈우 타교집로(이영희 성도의 부친, 배나루 성도의 장인, 6교구 장로님) / 4월 20일 밤세, 4월 20일 장례
- 2. 최자희 씨(간사님) 성도의 모친, 유희숙 집사의 시모, 1교구 중환자(4주) / 4월 27일 밤세, 4월 29일 장례
- 3. 권덕순 타교집사(이혜숙 은퇴 권사의 모친, 6교구 가락수성 구역) / 5월 1일 밤세, 5월 3일 장례
- 4. 강동택 은퇴권사(10교구 반목 2구역) / 5월 2일 밤세, 5월 4일 장례

결혼

- 1. 김규환 군(이성희 집사의 아들, 2교구)와 이소희(이성희 집사의 딸) / 10월(목) 오후 7시 at CTR(메이디 센터) 5층 크리스탈홀
- 2. 이재홍 군(박자구 권사의 아들, 2교구)와 김영연 씨(이재홍 군의 딸, 교동동 평화성전 권모) / 11월(금) 오후 5시 41분 개동동 한국전민행동부부 5

송비로기아름

- 3. 한창훈 군(한호철 안수집사, 김옥순 권사의 아들, 19교구)와 조수연 양조정에 성도, 박무생 성도의 딸, 평안교회 / 12월(토) 오전 11시 장성동 공화당미인 3층
- 4. 민병철 군(민만식 씨, 윤현숙 씨의 아들)과 유우정 양조정에 성도, 평안교회 성도의 딸, 14교구 / 12월(토) 낮 12시 이따라와 성도 3층 그랜드도플
- 5. 은태일 군(은원조 집사, 은숙 씨의 아들, 일타누영교회)와 김하은 양(김영연 안수집사, 박현숙 권사의 딸, 10교구) / 12월(토) 오후 1시 일타누영교회 예루살렘성전(본당) 502-415-5021
- 6. 최우석 씨(이성희 집사, 김경희 씨의 아들)과 김희정 양(김경희 집사의 딸, 16교구) / 12월(토) 오후 1시 노보텔메리어트 2층 신라홀(독산)
- 7. 최희종 군(이한준 안수집사, 이주현 목사의 아들, 중앙삼양교회, 10교구)와 이준주 양(이은숙 성도, 이순자 성도의 딸, 옥곡성전교회, 교리교회) / 12월(토) 오후 3시 강남타이널빌딩 5층 로즈마리아홀
- 8. 박재민 군(박홍문 안수집사, 박현숙 집사의 아들, 14교구)와 김나수 양(김나수 성도, 유인숙 집사의 딸, 옥곡성전교회) / 12월(토) 오후 5시 노보텔메리어트 2층 신라홀(독산)

◆ 제1·2교구위원회 헌신예배

일 시: 5월 9일(수), 수요일 2부 예배 시 장소: 본 당

◆ 2007년 CMTC 추기문원 일정

일 시: 5월 6일(토요일), 13일(주일), 26일(주일), 찬양예배 후 대 상: 2007년도 단기간 교회장 주 중 이수자 전원 장 소: 갈릴릴의 창

* 성도 추가 지원자의 요청 및 교회 신도수가 증가하여 추기문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단기간 참가 희망자는 총합집행에 별도 접수하시 바랍니다.

◆ 2007년 CMTC 제3차 1월 수련회

일 시: 6월 2일(토요일), 오후 2시~5시 장 소: 갈릴릴의 창

대 상: 2007년도 단기간 교회장 지원자 전원

◆ 2007년 제4차 팀장훈련

일 시: 5월 16일(수), 5월 23일(수) 수요일 2부 예배 후 대 상: 2007년도 단기간교회장 예정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피택장로, 피택안수집사, 피택권사

◆ 1교구 영성훈련 일 시: 5월 10일(목) 장 소: 총한기도원

◆ 2교구 영성훈련 일 시: 5월 10일(목) 장 소: 총한기도원

「주의 영광」 찬양 CD 발매

찬양은 세속과 다른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금요찬양집의 시에 느꼈던 뜨거운 찬양의 감격을 일상에라도 생생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제작: 찬양위원회 / 보급처: 사무국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답답

	7 (월)	8 (화)	9 (수)	10 (목)	11 (금)	12 (토)	13 (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이상석	안치원/김명성	양재용/윤명범	이희식/윤용원	최성규/양승복	이재영/김정희	정중순/이복순

예배답답 안내 (5/9-5/13)

날짜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5/9	수요 I	끝이 없으신 하나님 (창 1:1-3) 김성관 목사	양재용	김은성	갈 길을 밝혀 보이시나 (호산나 찬양대)
5/9	수요 II	정계 (히 12:4-13) 김익찬 목사	임원택	임무현	은혜의 주님의 음성 (실로암 찬양대)
5/11	금요찬양	김성관 목사	최성규		예루살렘 찬양대 / 유원부 중창단 / 피아노 트리오
5/13	주일 I	여호와와 나 (출 17:8-16) 강명구 목사	이용진	김성식	(예배 전 찬양)
5/13	주일 II	여호와와 나 (출 17:8-16) 이성진 목사	윤유익	이강성	너 하나님께 이끌리니 외 / 바나나 찬양대 (일마누엘 오케스트라)
5/13	주일 III	여호와와 나 (출 17:8-16) 김성관 목사	김익찬	박용국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외 / 바나나 오성악합창단 찬양대 (일마누엘 오케스트라)
5/13	주일 IV	여호와와 나 (출 17:8-16) 김성관 목사	양재용	정철환	구주여 광종이 임하여 외 / 온유찬양대 (아너 오케스트라)
5/13	주일 V	여호와와 나 (출 17:8-16) 김성관 목사	정철환	원철용	은혜가 풍성한 날이 온 외 / 소로로 찬양대 찬양대 (일마누엘 오케스트라)
5/13	주일찬양	영광을 위하여 (딤후 6:3-12) 안치원 목사	최성규	정철환	만민은 연주대 / 실로암 찬양대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간	장소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오후 1:00(국악·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참가자 없는 예배)	본 당
주일전일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 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본 당
금요찬양집회	매일 저녁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 당

기도원 집회 안내 (☎ 031-766-5425)

집회	시간	차량
필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예배	저녁 11:00	요원찬양회 부속 앞 출발

오전 11시 드리는 주일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통역해 드립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p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분	시간	장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제1교육관 110호
유 아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유 지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307호
초 동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507호
중 동 1 부	오전 9:00	제1교육관 301호
중 동 2 부	오전 9:00	제1교육관 401호
중 동 3 부	오전 9:00	제1교육관 501호
고 동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1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 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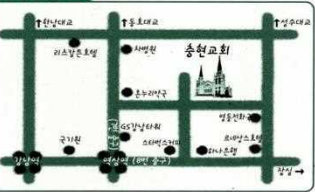
구분	시간	장소
청 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청 년 1 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장 년 2 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407호
장 년 3 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소 담 부	오후 12:15	다 할 리 홀
사 랑 부	오후 12:10	복자전 지하1층
예배다부	오전 9:00(학생) 오후 1:00(성인)	제2교육관 1층
탁 아 부	(약) 오전 8:30~8:40 (금) 저녁 7:40~7:50	선교관 1층
새가족가족회	오후 12:15	배 나 홀
출연연이인집	주간교육	제1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출원 복지관
국제한국전교부	오전 11:00	아 덴 홀

5월 총헌 기도의 창

- 1. 총헌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부활의 종인이 되게 하소서.
- 2. 24개 교구를 통하여 총헌교회와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 3. 위임목사들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4.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로련이 성령님의 뜻대로 진행되며, 총헌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영혼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 5. 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역삼동 일대의 모든 영혼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 6. 모든 위원회에 속한 각 부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하나되여 예수살렘 찬양대를 통해서 금요찬양집회가 보람의 은송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 7. 피택받은 일꾼들이 모든 교육을 통하여 십자가의 일꾼 되게 하시며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람의 복음을 전하는 중언 되게 하소서.
- 8.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통산·복지)과 총헌복지관이 복음으로 견고해지게 하시고, 현재 추진중인 양로원, 수양관, 남달성 및 본당 외벽색채 보수 공사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112호 옆)

교회 요지는 길



성 · 기 · 는 · 본 · 들

■ 위임목사 김성환

■ 사무장	■ 부목사	■ 면전도사
김은호 (제1교구위원장) / 김은성 (제2교구위원장) / 이종식 (제3교구위원장) / 김익찬 (제4교구위원장) / 이형수 (제5교구위원장) / 이계인 (제6교구위원장) / 권명옥 (제7교구위원장) / 최희준 (제8교구위원장) / 김승민 (제9교구위원장) / 김익찬 (제10교구위원장) / 김익찬 (제11교구위원장) / 김익찬 (제12교구위원장) / 김익찬 (제13교구위원장) / 김익찬 (제14교구위원장) / 김익찬 (제15교구위원장) / 김익찬 (제16교구위원장) / 김익찬 (제17교구위원장) / 김익찬 (제18교구위원장) / 김익찬 (제19교구위원장) / 김익찬 (제20교구위원장)	이종식 (제1부목사) / 김익찬 (제2부목사) / 김익찬 (제3부목사) / 김익찬 (제4부목사) / 김익찬 (제5부목사) / 김익찬 (제6부목사) / 김익찬 (제7부목사) / 김익찬 (제8부목사) / 김익찬 (제9부목사) / 김익찬 (제10부목사) / 김익찬 (제11부목사) / 김익찬 (제12부목사) / 김익찬 (제13부목사) / 김익찬 (제14부목사) / 김익찬 (제15부목사) / 김익찬 (제16부목사) / 김익찬 (제17부목사) / 김익찬 (제18부목사) / 김익찬 (제19부목사) / 김익찬 (제20부목사)	이종식 (제1면전도사) / 김익찬 (제2면전도사) / 김익찬 (제3면전도사) / 김익찬 (제4면전도사) / 김익찬 (제5면전도사) / 김익찬 (제6면전도사) / 김익찬 (제7면전도사) / 김익찬 (제8면전도사) / 김익찬 (제9면전도사) / 김익찬 (제10면전도사) / 김익찬 (제11면전도사) / 김익찬 (제12면전도사) / 김익찬 (제13면전도사) / 김익찬 (제14면전도사) / 김익찬 (제15면전도사) / 김익찬 (제16면전도사) / 김익찬 (제17면전도사) / 김익찬 (제18면전도사) / 김익찬 (제19면전도사) / 김익찬 (제20면전도사)